

2024년도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4년4월9일(화) 14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 건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대만)
-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 건
(군 자매결연 국가 우수시설 벤치마킹-중국 의빈시)

○간사 이강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강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재적위원 총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용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용기입니다.

2024년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건인 의안번호 제1호와 제2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대상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연수기간의 타당

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임

제안설명에 앞서 담양군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같음하고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와 회의록은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으로 제1호,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와 제2호, 군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 건입니다.

제1호 안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계획서는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조례」 제9조1항에 의거 해당 협의회의 연수계획서로 같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1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2
일까지 3박 4일 일정이며 출장 국가는 대만입니다.

우리 군의회 출장인원은 3명으로 최용만 의장, 이현우 홍보팀장, 강형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3쪽, 연수경비 산출내역입니다.

의장의 연수비용은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예산에서 부담하며 공무원 2명에 대한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 290만원은 담양군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4쪽, 연수일정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하여 국립고궁박물관과 서문정거리, 101타워 전망대, 라오허제 야시장을 견학하고 2일차인 5월 9일에는 화련으로 열차이동하여 장춘사, 태로각협곡, 자모교 자모정, 치싱탄 해변 등 자연 명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3일차인 5월 10일에는 야류 해양국립공원과 지우편거리를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4일차인 5월 11일에 별도의 일정 없이 귀국합니다.

7쪽, 참가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호에 대한 연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

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 심사기준표에 보면 연수의 필요성에서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사례가 있나요?

○간사 이강임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연수자가 동일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간사 이강임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 출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려는 내용들을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지?

○간사 이강임

담양군하고 접목할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의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은 담양군에 접목할 사례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을 자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국내외 연수를 자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연수를 자제해야 할 만한 특별사유가 혹시?

○간사 이강임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3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방문국에 감염병 발생률은 확인하셨는지?

○간사 이강임

지진은 발생했지만 감염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안전에는 큰 문제 없죠?

○간사 이강임

예.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다른 위원님?

○장강호 위원

담양군의회에서 계획 세운 것 아니죠?

○간사 이강임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세웠습니다.

○장강호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서 심사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기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간사 이강임

아니요. 매년 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방문 국가는 달라집니다.

○위원장 전용기

이번에 집행부에서 3명?

○간사 이강임

예, 의회에서는 3명 갑니다.

○위원장 전용기

총 몇 분이에요?

○간사 이강임

1차, 2차로 나누어져서요.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전일권 위원

51명인 것 같네요. 22개 시군이니까.

○간사 이강임

1, 2차 합해서 51명입니다.

○장강호 위원

A팀, B팀으로 나워서 2개조로 가나보네요.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검토 정도만.

내용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긴 하나 저도 두 번 가 본 곳인데 관광이나 여행자의 도시같은 벤치마킹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라남도협의회에서 계획서를 짰 것이라 여기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전용기

협의회에서 하면 담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다 해당되나요?

○간사 이강임

예.

○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가는 거네요?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4

○간사 이강임

예.

○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간사 이강임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3박4 일이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원 일치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호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담양군의회 및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서 위원

위원장님!

다음 심의내용이 제가 출장대상자라서 저는 제척사유가 될 것 같아서 심의를 피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기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은서 위원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박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피신청을 수락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고요.

(박은서 위원 퇴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호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임

의안번호 제2호, 군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국은 중국이며 출장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출장인원은 의원 아홉분과 의원 공무원 8명,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2명으로 총 19명입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목적은 지난해 담양군과 중국 의빈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앞으로 양도시간 국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빈시의 관광·문화·대나무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시설 등을 견학, 의원들의 식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연수일정입니다.

주요기관 방문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성도에 도착 예정입니다.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5

2일차인 5월 28일은 성도에서 여강으로 이동하여 충의전통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차와 말을 교역하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역로인 차마고도의 호도협을 견학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3일차인 5월 29일은 여강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 여강과 우리 군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800년 역사의 성벽없는 고성인 여강고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강고성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로 창평 슬로시티와 비교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인 5월 30일은 담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의빈시로 이동하여 의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의빈시와 앞으로 우리 군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의 생태적 가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죽산업협동창산센터로 이동하여 센터 운영 현황 등의 설명을 듣고 대나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5일차인 5월 31일은 의빈시의 행정관리 기관에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와 면담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시센터이자 대나무

공예 관련 공방인 장안현 대나무예술공방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과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6일차인 6월 1일에는 중국 최대의 죽립인 촉남죽해를 방문하여 대나무를 관광자원화 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용두산 죽문화공원을 방문하여 의빈시 박물관, 의빈시 문화관, 대나무 문화박물관, 대나무 테마호텔, 관광객 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마지막날인 6월 2일에는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10쪽, 출장자 개인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1쪽, 출장경비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총 4,718만 원으로 의원·직원 1명당 273만6천 원, 의장·부의장은 각 307만 원입니다.

산출금액은 환율 기준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국외여비 산출등급이 평의원님들보다 더 높아 산출금액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 국외출장으로 자매결연 맺은 중국 사천성 의빈시와 관광·축제, 대나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상호 공동발전과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6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빈시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경관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정책 및 지역 소득창출 사례 벤치마킹하여 군정 정책 입안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진 대나무 분야 활용사례에 대한 비교 시찰을 통해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선진 의정 구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철 위원

의원 9명에 의회 직원이 8명이 가는데 의회 직원이 너무 많이 가는거 아니가요?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간사 이강임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각 분야가 다릅니다, 업무내용에 따라서.

10페이지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기

업무 내용이 다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이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사 이강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

○장강호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이 걱정되긴 했는데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가시는 분들마다 업무내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광성, 외유성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몇 명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의회나 군정에 접목될 수 있고 정책 기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견학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도 여러 군데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 관광일지언정 많이 보면 본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일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는 인원이 적다보니 7명만 가도 전원이 다 가는 것처럼 생각되고 집행부는 1,0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가더라도 10분의 1 이지만 의회는 20명 중 10명 가면 50% 가는 거잖아요. 인원수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분장을 했지만 형식적이기 보다는 의빈을 왜 가는지. 의빈이 대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7 나무와 관련된 고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자매결연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다녀 왔고 의장님도 다녀오신 것 같고.

의장님이 다녀오신 뒤에 감명받아서 의회 의원님과 직원들도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담양이 대나무고장이긴 하지만 대나무산업이 침체기에 빠져든 것 같아요.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대나무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주문할 게 담양군에 대나무공예나 대나무산업 전수자나 후계자들이 없습니다.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의빈이나 성도쪽에 가면 대나무산업이나 공예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 해요. 명인들이나 장인들도 중요하지만 전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전수자들의 처우가 개선 안 되면 맥을 잇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가시게 되면 상세히 살피시고, 담양군도 후계자, 전수자를 양성하지만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대접을 못해 주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요. 잘 보고 오셔서 담양에 대나무산업이나 공예하시는 분들이 대나무 고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여러 명이 가서 다양한 모습을 보고 담양군 대나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용기

다른 위원님?

○전일권 위원

몇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양군 마을리더교육을 1년간 했어요. 한달에 2박 3일씩해서 많이 했죠.

그때도 대나무 활성화에 관심이 많던 때라 마을리더 교육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대나무 관련 견학을 했는데 거기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시각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장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라는 표현은 보다는 죽었다는 표현일 듯 정도거든요.

그때 갔다와서 군수님한테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봅시다 했는데 재원 확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만들 것 같다. 구태여 대나무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대나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온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인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관련 산업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되지. 못 살면 지속 안 되거든요. 장인 한 두 사람만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간다는 시각으로 볼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8 수 있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과 갔다 온 사람의 시각은 너무 달라서 저는 반절쯤 된다면 2차도 진행해서 다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를 제대로 쓰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이강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대나무산업을 견학하고자 자매결연하신 분들 다녀왔고 금년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집행부에서도 1차, 2차해서 56명 정도 의빈시 견학시켜서 대나무 관련 산업을 군에 접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대나무 산업이 침체된 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진작부터였는데 그 전에는 이런 데 많이 안 가셨나요?

○간사 이강임

아주 오래 전에 중국 안길현을 갔습니다. 한 1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10년 전에 가고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간사 이강임

예. 그 이후로 대나무 관련해서 의빈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기

더 다른 위원님들?

○김환철 위원

연수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도의회에서 20~30명 의원들이 가더라도 수행원 서너명 가요. 무슨 말이나면 의원들이 연수가는 거거든요. 공무원 연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행이거든요. 많다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출장 목적에 맞게 잘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강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기

다른 분?

○김영민 위원

의빈시도 감염병 발생여부 이상 없어요?

○간사 이강임

예.

○김영민 위원

저도 내용이나 업무분장 등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장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를 많이 나갔다 오는 게 본 사람의 의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1~2년은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의욕도 생기고 문물을 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김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국민들 정서가 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이지 않냐는 의구심이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9

많아서 내용은 좋은데 앞으로는 3팀 정도 나눠서 역할을 나누고 방문 도시를 분리해서 흩어져서 지원하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분포시켜서 3팀 정도 짜서 역할분담해서 와서 여기에서 사례를 발표시켜서 공유하고 평가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까지 계획을 더 포장을 잘하면 김환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구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꺼번에 17명 하지 말고 3분과로 짜면 대 여섯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임

예.

○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는 것은 다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군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진정한 벤치마킹인지 아니면 군비를 낭비하면서 허울 좋은 구실만 내세워서 나들이 갔다 오는지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군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목적하는 바 담양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진실한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 하는데 그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의견인 것 같으니까요. 혹시 기록에 남긴다면 위원들 공동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더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기준표를 작성한 후 본 건에 거수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표 작성하나요?

○의정팀장 김정순

예,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것에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심사기준표 작성)

○위원장 전용기

의안번호 제2호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계획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투표결과 의안번호 제2호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계획 심의 건은 출석위원 총 6명 중 찬성 5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호 담양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10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전용기
부위원장	장강호
위원	김환철
위원	전일권
위원	김영민
위원	이문태
위원	박은서

○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 3인

의회사무과장	이강임
의정팀장	김정순
지방행정서기	최현지